

‘5·18 가두방송’ 주인공 전옥주씨 별세

“광주시민 여러분~” 그 외침 남기고 하늘로

항쟁 기간 시민 독려 앞장  
영화 ‘화려한 휴가’의 모델  
간첩으로 몰려 옥고 치르고  
모진 고문에 평생 후유증  
5년전부터 파킨슨 병 앓아



지난 2018년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서 1980년 당시 가두 방송을 재현하고 있는 전옥주씨의 생전 모습. <5·18 38주년 기념식 영상 캡처>



1980년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가두방송을 하고 있는 전옥주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캡처>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 주십시오.”  
지난 1980년 5월, 거리방송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던 전옥주(본명 전춘심)씨가 지난 16일 밤 별세했다. 향년 72세.  
전씨는 영화 ‘화려한 휴가’ 중 이요원씨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차명숙씨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항쟁 초기(5월18일~21일), 차량 위에 올라 확성기 등으로 당시 상황을 알리는 가두방송을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당시 전씨의 방송은 대학 생 중심의 시위를 범시민적 항쟁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씨는 이 때문에 5월 22일계 계엄군에게 체포됐다. 체포된 뒤 겪었던 지독한 고문 때문에 그는 트라우마로 힘든 일생을 보내야 했다.  
당시 보안대는 전씨를 체포한 뒤 간첩으로 몰기 위해 폭언을 퍼붓고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온갖 고문을 했다.  
열흘 동안 잠도 재우지 않았고 화장실도 보내지 않았다.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잔디밭에서 용변을 보라고 하는가 하면, 고문으로 인해 팔이 부러

지고 온몸이 부어오르며 하혈이 심한데도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  
전씨는 당시 상황을 “수치심, 공포와 싸우는 시간들”이라고 회상한 바 있다.  
전씨는 포고령 위반과 소요사태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중 이듬해인 1981년 4월 사면, 출소했다.  
전씨의 몸-마음은 이미 고문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다.  
당시의 트라우마로 전씨는 수시로 악몽에 시달렸고 밤에도 자다가 느닷없이 뛰쳐나가는 이상

행동도 보였다.  
수사기관의 미행·도청 등 감시도 계속됐다. 거주지에서 4km를 벗어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고, 느닷없이 수사관이 집에 들이닥쳐 집기류를 헤집어 놓는 것도 다반사였다.  
전씨는 이런 상황에도 5·18 진상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1988년 5·18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군사 정권 관료들의 거짓 진술을 뒤집는 5월 항쟁의 실체를 낱낱이 증언했다.  
그는 5·18여성동지회를 조직하는 등 5·18 당시 여성들의 활약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고 지

난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중에도 국회에서 진행된 천막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전씨는 투병생활과 트라우마를 힘들게 버텨오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자택 인근에서 급성 질환으로 숨졌다.  
전씨와 함께 가두방송을 진행한 차명숙씨는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 버리니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울먹였다.  
전씨의 빈소는 경기 시흥 시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남편과 3남 1녀를 두고 있다. 전씨는 19일 발인 뒤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품받고 사건 무마  
경찰관 징역형 선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중부경찰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사건 관련자에게 하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노래방 운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양식장서 작업하다 각막화상  
“외국인노동자에 2000만원 쥐라”

법원이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다 김활성처리제가 눈에 들어가면서 각막화상을 입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3부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진도지역 김양식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B씨의 김양식장에서 김활성처리제를 약물에 붓는 작업을 하다 바람에 날린 활성처리제가 눈에 들어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피해를 입자 6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 눈에 김활성처리제가 들어가 지 않도록 안전용 고글이나 안전보호구 등 노동자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가 입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정당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A씨의 ‘남은 기간(스리랑카의 법정 퇴직 연령 55세)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일실수익)’에 대한 배상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A씨가 사고 이후 수협에서 받은 상병급여 및 장애보험 일시금(3300만원)이 한국 체류기간(2015년 3월~2018년 3월) 동안의 최저임금(월 136만~194만원)과 모국인 스리랑카에서의 고졸 생산직 평균임금(월 평균 269달러)을 기준으로 적용한 A씨 일실수익을 넘어선 점을 들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많은 눈에 교통사고 속출

광주·전남 곳곳에 17일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영암(학산면) 9cm, 광주 8.9cm, 나주 8.8cm, 장성 8.4cm, 화순 7cm 등의 눈이 내렸다.  
많은 눈으로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광주·전남 소방본부 등은 이날 오후 4시까지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만 8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17일 오전 10시께 구례군 산동면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천마터널 인근에서 10t 화물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화물차에 실려 있던 닭 500여 마리가 도로에 쏟아져 나오면서 일대 도로가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광주-무안 간 고속도

로 노안터널 인근에서도 차량 8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광주에서도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북구 신용동 지하차도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 운전자 2명이 다쳤고 비슷한 시각, 광산구 평동에서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교통 정리를 위해 정차해 놓은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불에 탔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낮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 3~8cm, 전남동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8일 아침 영하 7~영하 2도, 낮 1~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19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7일 오전 구례 천마터널 인근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 닭 500여 마리가 도로에 쏟아져 나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Advertisement for Green Goong Prime Ever 120. The ad features a pink background with large orange flowers. The text includes the brand name '그린궁' (Green Goong) and '프라임에버 120' (Prime Ever 120). It describes the product as a health supplement for women, containing ingredients like '알로에' (Aloe) and '대두이소플라본' (Soy Isoflavone). The ad also includes a phone number '080-234-6588' and a logo for 'Greenalloe'.